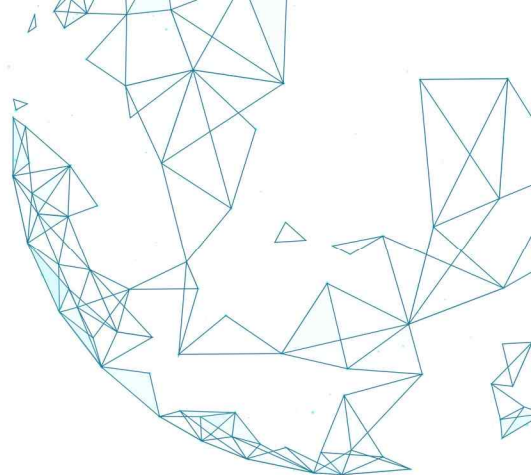


ICT GLOBAL MARKET ANALYSIS

품목별 ICT 시장동향

국내 ICT기업 해외진출 동향





CONTENTS

품목별 ICT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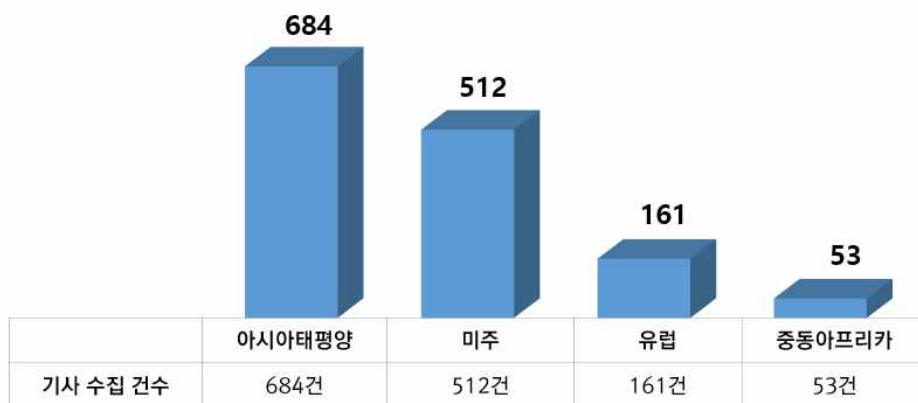
SUMMARY	3
I 아시아태평양	4
1. 분석 결과	
2. 주요 사례	
II 미주	10
1. 분석 결과	
2. 주요 사례	
III 유럽	15
1. 분석 결과	
2. 주요 사례	
IV 중동아프리카	21
1. 분석 결과	
2. 주요 사례	
IV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계획	27

※ 참고문헌

(2024년 하반기) 국내 ICT기업 해외진출 동향

▶ 분석 방법론

1. 수집 기간 : 2024년 6월 ~ 2024년 11월
2. 기사 수집 건수 : 총 1,410건



3. 분석 방법

분석 키워드를 기준으로 기존 소스원과 구글에서 수집한 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행함.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주요 진출 국가와 진출 품목, 주요 진출유형을 도출함. 또한, 해당 분석 결과의 권역별 실제 사례를 정리함

4. 분석 키워드

권역별	국가명	진출품목		진출유형
아시아태평양	뉴질랜드	OTT	e러닝	출시
	대만	인공지능	스타트업	
	라오스	사물인터넷	통신	수주
	...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미주	멕시코	헬스케어	양자컴퓨팅	투자
	미국	자율주행차	생체인식	
	브라질	소프트웨어	디지털트윈	제휴
	...	3D 프린팅	메타버스	
유럽	네덜란드	핀테크	VR/AR/MR	법인설립
	독일	디지털콘텐츠	인터넷서비스	
	러시아	스마트ICT	빅데이터	기타(계획)
	...	디바이스	정보보호	
중동·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			



CONTENTS

품목별 ICT 시장동향

I 아시아태평양

1. 분석 결과
2. 주요 사례



I. 아시아태평양

1. 분석 결과

■ 아시아태평양 국가·품목·진출유형 분석 결과

- 아시아태평양 데이터 분석 결과, 국내 ICT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총 297건이 도출됨. 2위는 일본으로 중국 대비 28건 적은 269건이 도출됨. 3위를 기록한 말레이시아는 135건이 도출되었으며, 인도와 베트남은 각각 130건과 99건이 도출되며 4위와 5위를 기록함
- 품목 분석 결과에서는 인공지능이 379건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았음. 2위는 통신으로 139건이 도출되었으며, 디바이스가 107건, 소프트웨어가 74건으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함
- 진출유형 분석 결과에서는 출시 관련 키워드가 247건으로 가장 많이 도출되었으며, 제휴와 투자 관련 키워드가 각각 234건, 189건 도출되며 그 뒤를 이었음

[표 1] 아시아태평양 국가·품목·진출유형 분석 결과

순위	국가		품목		진출유형	
	분류	빈도	분류	빈도	분류	빈도
①	중국	297	인공지능	379	출시	247
②	일본	269	통신	139	제휴	234
③	말레이시아	135	디바이스	107	투자	189
④	인도	130	소프트웨어	74	수주	150
⑤	베트남	99	VR	64	법인설립	8
⑥	동남아	87	스타트업	61	-	-
⑦	싱가포르	71	클라우드 컴퓨팅	57	-	-
⑧	대만	68	정보보호	51	-	-
⑨	인도네시아	66	헬스케어	29	-	-
⑩	호주	52	사물인터넷	28	-	-



I. 아시아태평양

2. 주요 사례

①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

■ 다큐움, 중국 지점 설립 및 반도체 공정 품질 검사 AI 기술 제공

- 반도체 공정 품질 검사 전문 AI 기업 다큐움이 한중산업기술혁신연구소(ITIRI)의 지원을 받아 중국 쑤저우에 지사를 설립하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다큐움은 일반 산업용 카메라를 이용해 기존 고사양 카메라 비용의 일부로 실시간으로 미세 결함을 감지하는 등 동적 모션 공정에서 마이크로 공정 품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유명함
- 2019년 11월에 설립된 ITIRI는 장쑤성 쑤저우 산업 단지에 위치한 과학 기술 기업 인큐베이터로, 한중 공동 연구 협업, 기술 산업화 사업, 인재 육성, 국제 기술 혁신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TIRI는 다큐움에 사무 공간과 지점 설립 비용을 제공하며, 중국 내 고객 발굴을 독점적으로 지원함
- 다큐움은 한국의 집중된 국내 시장과 비교해 많은 반도체 기업이 있는 중국을 첫 해외 시장으로 삼고 있음

■ 페스카로, 중국 반도체 기업과 차량 보안 솔루션 공급 계약 체결

- 페스카로는 중국의 차량용 반도체 칩 전문기업 지신과 자동차 보안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함
- 해당 계약을 통해 페스카로는 지신의 반도체 칩에 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을 내장하여 공급하며, 판매량에 비례하는 수익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음
- 중국 정부가 최근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표준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 내 규제 대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페스카로와 지신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더욱 안전한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파트너십을 지속할 계획임
- 페스카로의 홍석민 대표이사는 “지신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수준의 보안 솔루션을 지신 제품에 최적화하여 중국 GB 표준뿐 아니라 유럽 등의 국제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I. 아시아태평양

2. 주요 사례

② AI 솔루션으로 일본 금융시장 공략

■ 현대카드, AI 플랫폼 '유니버스'로 일본 시장 진출

- 현대카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를 일본의 주요 카드사 중 하나인 SMCC에 수출하며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움
- 이는 한국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첫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업적임. 수천억 원 규모의 이 계약은 한국에서 단일 소프트웨어 수출로는 기록적인 성과를 나타냄
- 유니버스 플랫폼의 성공적인 일본 시장 진출은 수미토모 미쓰이 금융그룹(SMFG) 내 다른 자회사와 국제 금융기관들이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게 하여 수출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유니버스 플랫폼은 데이터 과학 기반의 초개인화 AI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구조화하는 태깅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행동, 선호도, 조건을 예측하도록 설계됨
- SMCC는 '유니버스'를 활용해 회원의 선호도, 결제 패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임

■ 한컴, AI 생체인식 솔루션으로 일본 금융기관 공략

- 한컴은 금융 인공지능(AI) 선도기업 이노핀(Inopin), 일본 AI 핀테크 스타트업 알쿠즈(Alqouz)와 함께 일본 금융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함
- 한컴의 이노핀 및 알쿠즈와의 협력은 일본에서 증가하는 고보안 생체 인식 솔루션 수요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한컴은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인식 등 첨단 신원 확인 기술로 유명한 스페인의 AI 생체인식 전문기업 페이스파이(FacePhi)가 개발한 AI 생체인식 솔루션을 일본 금융기관에 공급할 계획임
- 페이스파이의 최첨단 안티 스푸핑 기술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로부터 i-beta 레벨 2 인증을 받아 일본 금융기관의 엄격한 보안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이번 협력은 알쿠즈의 일본 금융기관 내 강력한 네트워크와 이노핀의 시장 진입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임
- 한컴은 페이스파이의 얼굴 인식 기술을 금융 분야를 넘어 일상생활로 확장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마케팅 노력을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임



I. 아시아태평양

2. 주요 사례

③ 인도 배터리 관련 협약 체결 다수

■ 현대차-기아, 인도 기관 및 기업과 배터리 관련 협약 체결

- 현대차-기아, 인도공과대학(IIT)과 배터리 연구 혁신센터 설립
 -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의 명문 기술원인 IIT 델리, IIT 봄베이, IIT 마드라스와 협력하여 현대 혁신센터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함
 - 해당 이니셔티브는 배터리 및 전기화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임
 - 현대 혁신센터는 IIT의 우수한 교수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배터리 및 전기화 분야의 첨단 기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교수들로부터 연구 아이디어를 받아 현지 시장에 맞춘 기술과 기능을 발굴하여 미래 기술을 위한 핵심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임
- 현대차-기아, 인도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출시
 - 현대차-기아는 인도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EV)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인도 내 선도적인 EV 제조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임
 - 양사는 인도의 대표적인 납축전지 기업인 엑사이드(Exide)의 자회사인 엑사이드 에너지(Exide Energy)와 인도 특화 EV용 배터리 셀 생산을 국산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엑사이드 에너지는 연말까지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셀의 초기 양산을 시작할 계획임
 - 이번 협업은 현대차와 기아차 전용 배터리 셀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일환이며,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전기화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파트너십을 확장하여 비용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 재영텍, 인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 재영텍은 인도 기업 타바시아(Tabasya)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도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함.
- 양사는 인도에서 배터리 종합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재영텍은 후처리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순도 99.5% 이상의 고순도 배터리급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음.
- 타바시아는 인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를 운영하며, 피닉스 그룹과의 파트너십 및 재영텍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 내 중고 배터리 및 가공 쓰레기를 확보할 예정임.
- 합작법인은 2026년까지 전처리에서 후처리 작업으로 점차 확장하여 약 13만 대의 전기차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



I. 아시아태평양

2. 주요 사례

④ 베트남 ICT기업과 손잡고 동남아 시장 개척

■ SK C&C, FPT IS와 디지털 ESG 솔루션 공동 개발

- SK C&C는 베트남의 ICT 선도 기업 FPT IS와 ‘글로벌 디지털 ESG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여 디지털 ESG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제공하기로 함
- 본 협력은 한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세계 주요 지역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합 디지털 ESG 오퍼링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양사는 SK C&C의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과 FPT IS의 카본 어카운팅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탄소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베트남 현지 신축 공장을 중심으로 넷제로 팩토리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뉴로다임, 베트남 메디컬 그룹과 AI 헬스케어 협력

- 뉴로다임은 베트남 북부 최대 메디컬 그룹인 푸람 메디컬 그룹(Phuc Lam Medical Group)과 협력하여 AI 기반 질병 예측 진단 플랫폼 ‘아이테논’을 공급한다고 발표함
- 본 협력은 베트남 현지 국민과 한국인 거주자에게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체결됨
- 이번 협약은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의료 서비스 및 병원 관리 교류, 의학 연구 프로젝트 및 학술 회의 조직, 의료진 교류 등을 포함하며, AI 기반 질병 예측 및 진단 시스템이 핵심 요소로 강조됨
-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엔씨소프트, VNG와 합작법인 통해 게임 시장 진출

- 엔씨소프트는 베트남의 종합 IT기업 VNG와 합작법인 ‘NCV GAMES’를 설립하여 동남아시아 게임 시장에 진출함
- 이 합작법인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에 게임을 선보일 예정임
- VNG는 베트남 1위 게임 기업으로, 동남아 전역에 130종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음
- NCV GAMES는 VNG의 게임 퍼블리싱 전문성과 엔씨소프트의 게임 개발 기술을 결합하여 동남아시아 게이머들에게 블록버스터급 게임을 제공할 계획임



CONTENTS

품목별 ICT 시장동향

II 미주

1. 분석 결과
2. 주요 사례



II. 미주

1.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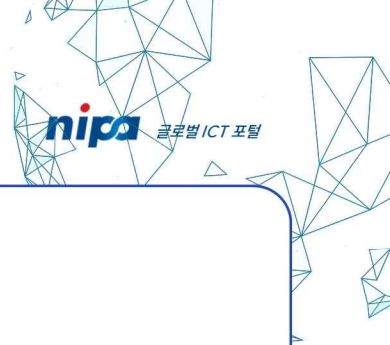
■ 미주 국가·품목·진출유형 분석 결과

- 미주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총 571건 도출되었으며, 미주 데이터의 약 70%를 차지함. 그 뒤를 잇는 국가는 캐나다로 44건 도출되었으며,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키워드는 각각 35건, 10건, 10건 도출됨
- 품목 분석 결과에서는 인공지능이 308건으로 가장 많이 도출되었으며, 통신과 VR이 각각 92건, 72건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함
- 진출유형 분석 결과에서는 출시 관련 키워드가 167건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투자 관련 키워드도 148건 도출됨. 그 외 수주와 제휴 등의 키워드도 각각 127건, 103건 도출되었음

[표 2] 미주 국가·품목·진출유형 분석 결과

순위	국가		품목		진출유형	
	분류	빈도	분류	빈도	분류	빈도
①	미국	571	인공지능	308	출시	167
②	북미	107	통신	92	투자	148
③	캐나다	44	VR	72	수주	127
④	멕시코	35	디바이스	55	제휴	103
⑤	남미	25	소프트웨어	52	법인설립	6
⑥	브라질	10	스타트업	35	-	-
⑦	아르헨티나	10	클라우드 컴퓨팅	31	-	-

출처 : 2024년 6월~2024년 11월, IT 뉴스매체 분석 결과



II. 미주

2. 주요 사례

① AI 기반 기술로 미국 특허 획득

■ 인즈웨이브, AI 컨텍스트 기반 대화 서비스 및 다중 플랫폼 비주얼 스크립트 특허 획득

- 인즈웨이브 시스템즈는 AI 컨텍스트 기반 대화 서비스 및 다중 플랫폼 비주얼 스크립트 제공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를 성공적으로 획득함
- 2024년 11월 28일 발표된 이 특허는 화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자동으로 컨텍스트화하여 자연스러운 대화 반응을 생성하는 기술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컴퓨팅 장치에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킴

■ 엠로, AI 기반 구매 품목 데이터 분석 및 자동 분류 기술 특허 등록

-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는 자연어처리(NLP)를 활용하여 기업 구매 시스템에서 방대한 품목 데이터의 유사도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AI 기반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를 등록함
- 해당 특허는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도 보유하고 있어 엠로의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보여줌
- 특허 기술은 현대차, 대한항공, HD현대오일뱅크, 한화건설, 현대제철, 포스코DX 등 주요 기업에 공급된 엠로의 AI 소프트웨어 ‘스마트아이템닥터’에 통합되어 있으며,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기술 선진국인 미국에서 엠로의 시장 침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딥엑스, AI 반도체에 대한 100번째 미국 특허 출원

- AI 반도체 스타트업 딥엑스는 시스템 온 칩(SoC), 신경 처리 장치(NPU), AI 비전, 이미지 신호 처리기(ISP) 및 AI 응용 분야에 중점을 둔 100번째 미국 특허를 출원함
- 이 대기록은 딥엑스가 AI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함
- 특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NPU 기술은 기존 GPU의 높은 전력 및 비용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어 차세대 AI 반도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딥엑스의 기술은 ‘온디바이스 AI’ 또는 ‘엣지 AI’에 최적화되어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독립적으로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딥엑스가 미국 시장에서 기술적 입지를 확립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진입 장벽을 구축하려는 계획임



II. 미주

2. 주요 사례

② 통신 분야에서 최신 기술로 미국 시장 진출

■ 에치에프알, 이음5G로 미국 시장 공략

- 에치에프알은 이음5G로 알려진 프라이빗 5G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성과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전략적 행보는 스페인에서 열린 MWC24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보이며 성공을 거둔 데 이어 진행되는 것이며, 에치에프알은 글로벌 전문 네트워크 부문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임
- 이음5G 기술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위해 설계되어 지정된 지역 내에서 5G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보안 강화와 빠른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여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시킴
- 에치에프알의 자회사인 HFR 모바일이 이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5G 전문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의 1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삼성전자, 미국 지역통신사 대상 5G 네트워크 강화

- 삼성전자는 ‘엔드투엔드’ 5G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미국 지역 통신사업자에게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백엔드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역 통신사의 5G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시장은 US셀룰러(UScellular)와 엘리먼트 모바일(Element Mobile)과 같은 다양한 지역 통신 사업자가 LTE에서 5G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삼성전자는 C-밴드와 CBRS 등 광범위한 5G 장비와 코어망에서 기지국까지 완벽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들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음

■ 이노와이어리스, C-V2X 기술로 미국 자동차 통신 시장 진출

- 이노와이어리스는 C-V2X 기술을 통해 미국 자동차 통신 시장에서 중추적인 발판을 확보하였음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5.9GHz 대역에 이 기술을 배포할 수 있는 면제 승인을 받은 후, 이노와이어리스는 미국 자동차 및 차세대 지능형 운송 시스템(C-ITS) 시장을 겨냥한 C-V2X 통신 솔루션을 개발 및 배포할 수 있게 되었음
- FCC의 이번 면제 승인은 기존의 DSRC 기술에서 C-V2X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의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함
- 이노와이어리스는 다가오는 국제 행사에서 C-V2X 기반의 도로변 장치와 차량 탑재 장치를 선보일 예정이며,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II. 미주

2. 주요 사례

③ 미주 지역에 사이버보안 솔루션 제공

■ 에이아이스페라, 멕시코 사이버 보안 관리 회사와 파트너십 체결

- 에이아이스페라(AI SPERA)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인 해커스 센트럴(Hackers Central)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
- 이번 협업은 AI SPERA의 첨단 솔루션을 통합하여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커스 센트럴은 취약점 스캔, 침투 테스트, 사이버 인텔리전스, 피싱 캠페인 시뮬레이션, 포렌식 분석 등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종합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음
- 이번 협약을 통해 해커스 센트럴은 AI SPERA의 공격 표면 관리 솔루션 'Criminal IP ASM'을 멕시코 시장에 도입하여 현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임
- 또한, AI SPERA는 자사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검색 엔진 'Criminal IP'를 보안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직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임

■ 로이스, 미국 금융 및 전자상거래 기업에 사이버 보안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 로이스는 'WACON 2024 사이버보안 우수상'에서 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사이버보안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음
- 로이스는 미국 결제카드산업보안기준위원회(PCISSC)의 유일한 국내 QSAC(Qualified Security Assessor Company)로, 사이버보안 준수 및 규제 연구의 최전선에 서 있음
- 미국 내 금융 기업과 전자상거래 업체에 사이버 보안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엄격한 사이버 보안 규제 준수를 보장하고 있음
- 로이스는 보안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점점 더 엄격해지는 연방 및 주 사이버보안 요구 사항에 현실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음
- 로이스의 독립적인 서비스를 통해 규제를 준수하고 연방 및 주 검사나 감사에 대응하는 기관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CONTENTS

품목별 ICT 시장동향

Ⅲ 유럽

1. 분석 결과
2. 주요 사례



III. 유럽

1. 분석 결과

■ 유럽 국가·품목·진출유형 분석 결과

- 유럽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는 EU로 총 55건 도출되었음.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51건으로 가장 많이 도출되었으며, 독일이 42건, 프랑스가 37건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함
- 품목 분석 결과에서는 인공지능이 103건으로 가장 많이 도출되었으며, 통신이 31건, VR이 20건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함
- 진출유형 분석 결과에서는 제휴가 56건으로 가장 많이 도출됨. 투자와 출시가 각각 50건, 48건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하였으며, 수주도 28건 도출됨

[표 3] 유럽 국가·품목·진출유형 분석 결과

순위	국가		품목		진출유형	
	분류	빈도	분류	빈도	분류	빈도
①	EU	55	인공지능	103	제휴	56
②	영국	51	통신	31	투자	50
③	독일	42	VR	20	출시	48
④	프랑스	37	스타트업	18	수주	28
⑤	러시아	19	디바이스	16	법인설립	0
⑥	스페인	13	소프트웨어	13	-	-
⑦	폴란드	11	클라우드 컴퓨팅	12	-	-
⑧	스위스	11	정보보호	12	-	-

출처 : 2024년 6월~2024년 11월, IT 뉴스매체 분석 결과



III. 유럽

2. 주요 사례

① AI 기반 솔루션으로 유럽 헬스케어 시장 진출 본격화

■ 코어라인소프트, 영국 및 유럽 시장에서 AI 진단 솔루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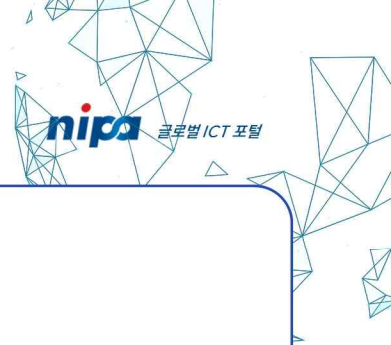
- 코어라인소프트는 영국에 본사를 둔 원격 판독 전문업체 DMC헬스케어(DMC Healthcare)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원격진단 업체와의 첫 협업을 발표함
- 본 파트너십은 특히 영국 폐암 검진 시장에서 글로벌 원격 판독 및 진단 워크플로우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보여주는 만큼 의미가 큼
- 이번 협업은 양사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리즈에서 열린 2024년 영국 흉부영상학회(BSTI) 연례회의에서 공식화됨
- 코어라인소프트의 AVIEW LCS 플러스를 DMC의 기존 워크플로에 통합하는 것은 진단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AI 기반 솔루션은 저선량 CT 스캔 데이터를 통해 폐암, 폐기종, 관상동맥 석회화 등 주요 흉부 질환을 동시에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미 독일, 이탈리아 및 유럽의 다섯 개국에서 폐암 검진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어 그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있음

■ CE MDR 및 UKCA 인증 획득으로 유럽 전역에서 제품 신뢰성 확보

- 코어라인소프트는 클래스 IIb 인증을 받은 최초의 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서 CE MDR 인증을 획득하며 중대한 이정표를 달성함
- 클래스 IIb 인증은 유럽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엄격한 국제 의료 기기 규정을 준수함을 보장함. CE MDR은 이전의 MDD 지침을 대체하여 법적 구속력 강화, 엄격한 평가 절차, 제품 안전 및 품질 시스템을 강화함.
- CE MDR 외에도 코어라인소프트는 UKCA 인증도 확보해 AI 제품군인 AVIEW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전역에 판매될 수 있게 됨

■ 리무빙컴퍼니, 프랑스와 협력하여 노인 건강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장 확대

- 리무빙컴퍼니는 AI 및 데이터 통합을 통해 노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의 비밸런스(bbalance)와 전략적 협업에 착수함.
- 본 파트너십은 한국과 유럽에서 PoC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노인의 균형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며, 양사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시장 도달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둠
- 이번 협업은 노인의 균형과 움직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낙상 예방, 재활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III. 유럽

2. 주요 사례

② 보안·인증 기술로 유럽 시장 공략 박차

■ 한컴, 에르콤과 협력하여 유럽 시장 공략

- 한컴의 자회사인 씽크프리는 암호화 기술로 강화된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프랑스 보안업체 에르콤(Ercom)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
- 이번 협업은 씽크프리의 클라우드 오피스 기능과 에르콤의 크립토박스(Cryptobox)를 통합하여,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활용해 공유 파일을 대내외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986년 설립되어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르콤은 모빌리티 보안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며, 2019년 글로벌 방산 10대 기업인 탈레스그룹(Thales Group)에 인수됨
- 크립토박스 솔루션은 탈레스그룹 내에서 널리 사용되며, 강력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씽크프리와의 공동 개발은 편의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탈레스그룹 내에서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을 배포하여 유럽 및 글로벌 시장 확장의 기준점으로 삼을 계획임

■ 현대모비스, 유럽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

- 현대모비스는 아시아 부품 기업 최초로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로부터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하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둠
- 차량사이버보안기준(VCS)으로 알려진 이번 인증은 현대모비스의 주요 제품이 유럽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확인하는 것임
- 이번 인증은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자동차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유럽은 7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사이버보안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는 2020년부터 전담 사이버보안 조직을 설립하고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CSMS)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접근을 통해 글로벌 규제 및 표준화 추세에 부응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함

■ 뎀코코리아, 유럽 CE 인증 서비스 제공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EE)에 따르면, 뎀코코리아가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공인시험실(CBTL)로 지정됨
- 이번 지정을 통해 뎀코코리아는 간소화된 검증 절차를 통해 유럽, 미국, 중국 등 53개국에서 인증 취득이 용이한 사이버보안 테스트 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이 2025년 8월까지 CE 인증의 필수 요건으로 사이버보안을 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IoT 제조업체들에게 뎀코코리아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III. 유럽

2. 주요 사례

③ 유럽 기업과 협력하여 차세대 차량 기술 개발

■ 현대모비스, 독일 자이스와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개발

- 현대모비스는 독일의 광학 기업 자이스(Zeiss)와 협력하여 차세대 차량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양산할 계획임
- 이번 협업은 차량 전면 윈드실드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한 홀로그램 윈드실드 디스플레이(HUD)를 제작하여 운전자에게 도로에 집중하면서도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함
- 홀로그램 HUD는 속도 및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본 정보만 표시하던 기존 HUD보다 상당한 발전을 나타냄
- 현대모비스는 보다 복잡한 콘텐츠를 통합하여 대시보드에 여러 개의 정보표시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운전 안전성을 높이고 차량 인테리어 디자인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밀 광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자이스는 선명한 콘텐츠를 앞유리에 투사하는 데 필요한 투명하고 머리카락처럼 얇은 필름을 개발하여 전문성을 기여할 예정임
- 본 파트너십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설정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Omdia)는 자율주행차의 증가에 힘입어 홀로그램 HUD 시장이 2030년까지 약 70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동운아나텍(Dongwoon Anatech), 유럽 지사 신설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

- 동운아나텍은 유럽 자동차 반도체 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함
- 프랑크푸르트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BMW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의 강력한 생태계를 갖춘 자동차 전자 제품의 주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 동운아나텍은 미국과 일본에도 지사를 확장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 전문가를 채용하여 판매 조직을 강화하고 있음
- 동운아나텍은 테슬라(Tesla)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자동차 반도체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2025년부터 납품을 시작할 계획임
- 또한, 동운아나텍은 다양한 차량 내 편의 기능과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카메라 모듈을 제어하는 반도체를 개발 중이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III. 유럽

2. 주요 사례

④ 유럽 배터리 시장 선도 위한 기술·인프라 강화

■ 필에너지, 유럽 배터리사에 46파이 배터리 와인더 장비 공급

- 필에너지가 유럽의 한 배터리 제조사에 직경 46mm 배터리를 와인더 장비 공급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함
- 이 전략적 움직임은 구체적인 거래처와 계약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럽 시장으로의 상당한 확장을 의미함
- 와인더 장비는 양극, 음극 및 분리기 재료가 함께 압연된 젤리 롤의 생산에 필수적임. 46mm 배터리는 기존 2170 원통형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용량이 5배, 출력이 6배에 달해 고급 와인더 장비의 사용이 필요함
- 필에너지는 자체 개발한 와인더와 고속 레이저 노칭 장치를 결합하여 양극과 음극을 정밀하게 가공함으로써 생산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이 기술 혁신은 배터리 생산 라인에 대량 공급되고 있음

■ 덕산퓨처셀, 유럽에서 반고체 배터리 특허 취득

- 덕산퓨처셀이 반고체 배터리 기술로 유럽에서 특허를 획득하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함
- 본 특허는 복합 고체 전해질과 이차 전지 제조 방법을 포함하며, 이미 한국, 미국, 일본에서 인정받았으며, 유럽 특허는 회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배터리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검증함
- 특허 기술은 반고체 배터리에 전해질이 주입된 산화리튬, 황화리튬, NASICON, 산화나트륨 고체 전해질과 같은 이온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포함함
- 덕산퓨처셀은 양극과 음극을 이중 코팅하는 다층 구조에 대한 기초 특허도 보유하고 있으며, 반고체 리튬이온 및 리튬메탈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 중임

■ LX판토스, 헝가리에 철도 터미널 개장으로 유럽 배터리 허브 공략

- LX판토스가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허브의 물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헝가리에 대규모 철도 터미널을 개장함
- 부다페스트에서 남서쪽으로 65km 떨어진 타타 터미널은 약 3만 6,000제곱미터 규모로, 2개의 철도 선로를 갖추고 있음
- 최대 1,450 TEU(20피트 컨테이너 단위)의 화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하는 블록 열차를 하루에 세 번 처리할 수 있음



CONTENTS

품목별 ICT 시장동향

IV 중동아프리카

1. 분석 결과
2. 주요 사례



IV. 중동아프리카

1. 분석 결과

■ 중동아프리카 국가·품목·진출유형 분석 결과

- 중동아프리카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빈도가 높은 국가는 UAE로 총 44건이 도출됨. 사우디아라비아는 21건 도출되었으며, 그 외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의 국가가 도출됨
- 품목 분석 결과로는 인공지능이 총 42건으로 가장 많이 도출됨. VR과 정보보호는 각각 25건, 16건 도출되었으며, 디바이스와 스마트ICT가 각각 13건 도출되며 뒤를 이었음
- 진출유형 분석 결과, 제휴 관련 키워드가 23건으로 가장 많이 도출되었으며, 출시 관련 키워드가 21건, 수주 관련 키워드가 21건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함

[표 4] 중동아프리카 국가·품목·진출유형 분석 결과

순위	국가		품목		진출유형	
	분류	빈도	분류	빈도	분류	빈도
①	중동	44	인공지능	42	제휴	23
②	UAE	23	VR	25	출시	21
③	사우디아라비아	21	정보보호	16	수주	21
④	카타르	8	디바이스	13	투자	17
⑤	남아프리카공화국	1	스마트ICT	13	법인설립	2
⑥	이집트	1	소프트웨어	11	-	-
⑦	-	-	스타트업	11	-	-
⑧	-	-	통신	11	-	-
⑨	-	-	클라우드 컴퓨팅	8	-	-

출처 : 2024년 6월~2024년 11월, IT 뉴스매체 분석 결과



IV. 중동아프리카

2. 주요 사례

① 중동 시장 진출 시동거는 AI 스타트업

■ AI 스타트업, 중동 시장 진출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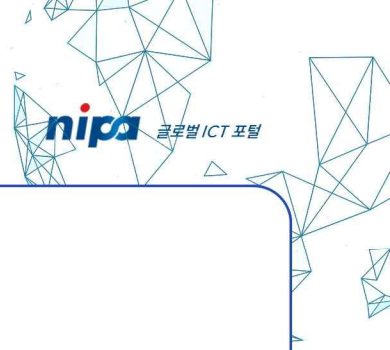
-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이 중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뤼튼테크놀로지스는 UAE 두바이에 사무소를 열고, UAE IT 지원센터에 입주하여 현지 오피스를 확보하였음
- 이는 중동을 일본에 이은 제2의 해외 시장으로 낙점한 결과이며, 중동 지역의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음
- 플리토는 중동 최대 IT 전시회 ‘자이텍스 글로벌(GITEX Global)’에 참가하여 AI 동시통역 솔루션 ‘라이브 트랜스네이션(Live Transnation)’을 선보였음
- 이 솔루션은 아랍어, 힌디어 등 38개 언어를 지원하며, 중동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기술력은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중동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뤼튼테크놀로지스, 중동 현지 오피스 및 법인 설립 추진

- 뤼튼테크놀로지스는 UAE 두바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정식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며, 이는 중동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임
-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중동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현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플리토는 내년 중동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지 투자 유치와 채용을 검토하고 있음
- 이는 중동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지 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동 지역 맞춤형 AI 솔루션 제공 및 협력 강화

- AI 스타트업들은 중동 지역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웨이센은 중동 최대 의료 IT 전문기업 메가마인드(Megamind)와의 협력을 통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병원에 AI 기반 대장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Waymed Endo)’를 납품하고 있음
- 이러한 협력은 중동 지역의 의료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래블업(LabUp)은 중동 지역 특화 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개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동을 거점으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중동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IV. 중동아프리카

2. 주요 사례

②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협력하여 합작법인 설립

■ 네이버와 NHC, 디지털 플랫폼 합작법인 설립

-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치행정주택부 산하 국영기업 NHC(National Housing Company)와 중동 지역에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함
- 본 협력은 리야드에서 열린 시티스케이프 2024 행사에서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네이버가 디지털 트윈 플랫폼 운영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 중동 시장에 첫 진출하는 것을 의미함
- 가칭 ‘네이버 아라비아’로 명명된 이번 합작법인은 사우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NHC의 풍부한 부동산 거래 경험을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에 맞춰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계획임
- 본 파트너십은 공공 행정 목적의 지도 기반 ‘슈퍼 앱’ 개발을 탐색하고, 도시 공공 모니터링 플랫폼을 강화하며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촉진할 예정임

■ 안랩과 SITE, 사이버보안 합작법인 ‘라킨’ 출범

- 안랩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버보안 및 클라우드 공급 기업 SITE와 함께 사이버보안 합작법인 ‘라킨(Rakeen)’을 공식 출범함
- SITE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소유한 기업으로, 이번 합작법인은 안랩의 보안 솔루션 전문성과 SITE의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합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이버보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리야드에 본사를 둔 라킨은 엔드포인트 보호,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기반 AI 위협 분석 플랫폼 등 포괄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생성형 AI 보안 및 IoT/OT 보안 솔루션을 포함한 서비스를 확장하여 지역 내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보안 환경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임



IV. 중동아프리카

2. 주요 사례

③ 중동아프리카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 및 착수

■ 삼성물산, 카타르 담수복합발전 프로젝트 수주

- 삼성물산은 카타르에서 4조 원 규모의 담수 복합발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함
- 본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전력청 카라마(KAHRAMAA)가 발주하고 일본 스미토모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카타르 Facility E 담수복합발전 프로젝트로,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EPC 금액만 28억 4,000만 달러(약 3조 9,70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
- 본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남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라스 아부 폰타스 지역에 위치하며, 최대 2,4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 발전과 하루 평균 50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담수복합발전을 건설하는 사업임
-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카타르 전체 전력량의 약 16%와 담수량의 17%를 담당하게 되어, 국가 인프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네이버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구축 프로젝트 착수

-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자치행정주택부 및 NHC와 함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의 본격 착수를 선언함
- 본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도시들의 매핑 및 정밀 3D 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 및 홍수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핵심 서비스 개발까지 이어질 계획임
- 네이버는 항공사진과 AI를 활용하여 10cm 내외의 오차 범위로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는 ALIKE 솔루션과 실내외 공간을 매우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삼성E&A, 카타르 에틸렌 스토리지 플랜트 수주

- 삼성E&A는 카타르 라스라판 석유화학과 ‘카타르 RLP 에틸렌 스토리지 플랜트’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함
- 본 계약은 대만 CTCI와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수행될 예정이며, 삼성E&A의 수행분은 약 3,019억 원에 달함
- 계약기간은 34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한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에틸렌 저장시설과 유틸리티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IV. 중동아프리카

2. 주요 사례

④ 중동 ICT전시회를 기회로 중동 ICT시장 공략

■ 딥브레인AI, 자이텍스 글로벌 2024 참가로 중동 시장 공략

- 딥브레인AI는 중동 최대 ICT 전시회인 ‘자이텍스 글로벌(GITEX Global) 2024’에 참가하여 AI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며 중동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딥브레인AI는 AI휴먼, AI스튜디오스,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소개하며 현지 언어인 아랍어를 지원하는 ‘AI휴먼 키오스크’로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음
- AI휴먼 키오스크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음성 합성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관람객들이 간단한 대화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접근성과 편리함을 강조하였음

■ 지니언스, EDR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 지니언스는 ‘자이텍스 두바이(GITEX DUBAI) 2024’에 참가하여 ‘지니안 EDR(Genian EDR)’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음
- 본 솔루션은 단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을 통해 위협을 탐지, 분석, 대응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으로, 국내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있음
- 지니언스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임. ‘지니안 NAC(Network Access Control)’와의 연동을 통해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 없이 기존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임
- 또한,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가 발행하는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PT 및 랜섬웨어 등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모니터랩, 아이온클라우드로 중동 및 아시아 시장 공략

- 모니터랩은 ‘테크 위크 싱가포르’와 ‘자이텍스 2024’에 참가하여 글로벌 엣지 기반 통합 보안 플랫폼 ‘아이온클라우드(AIONCLOUD)’를 소개하였음
- 본 플랫폼은 15개국 40개의 글로벌 엣지를 통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며, 사용자 단말 장치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보안을 제공하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아이온클라우드에는 웹 서버를 보호하는 ‘웹사이트 프로텍션’, 사용자와 조직을 보호하는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SIA)’,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원격 접속을 보장하는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SRA)’로 구성되어 있음



CONTENTS

품목별 ICT 시장동향

V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계획

1. 주요 사례

- ① 딥엑스
- ② 마이리얼트립
- ③ 스트라드비전
- ④ 케어링
- ⑤ 업스테이지



V.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계획

1. 주요 사례

① 딥엑스

■ AI 반도체 전문기업 딥엑스, 시리즈 C 펀딩 1,2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 딥엑스는 최근 시리즈 C 펀딩에서 1,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금하며 국내 스타트업 중 투자 유치 1위를 기록함
- 이번 펀딩 라운드에서는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SkyLake Equity Partners)로부터 600억 원, 타임폴리오 자산운용(Timefolio Asset Management)으로부터 300억 원을 확보함
- 이는 AI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액이 5,230억 7,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로 평가됨
- 딥엑스는 투자 유치 성공의 배경으로 독자적인 기술력과 시장의 수요를 꼽았으며, 회사의 가치는 7,000억 원대 중반으로 평가됨

■ AI 반도체 기술력과 특허로 시장 경쟁력 확보

- 딥엑스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34개의 공개 특허와 269건의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특허, 엣지 컴퓨팅용 신경망처리장치(NPU) 분야에서의 특허는 딥엑스의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며, 이러한 기술력은 다양한 엔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AI 반도체 설계에 기여하고 있음
- 딥엑스는 메모리 저감 기술을 통해 거대언어모델(LLM)을 구동할 수 있는 AI 반도체 개발에도 착수함
- 1세대 반도체 제품인 DX-V1, DX-V3, DX-M1, DX-H1은 각각 싱글 카메라, 자율주행, 로봇 비전, 다채널 영상 실시간 AI 연산에 특화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양산을 시작할 예정임

■ 북미·중화권 AI 영상 분석 시장 공략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딥엑스는 AI 기반의 영상 분석과 보안 시스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북미와 중화권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보안컨퍼런스(ISC) 웨스트’와 대만 ‘시큐텍’ 전시회에 참가하여 AI 솔루션을 소개하고, 물리 보안 업체 및 글로벌 산업용 기기 제조사와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딥엑스는 LG유플러스와 협력하여 온디바이스 AI 사업에서 sLLM 익시젠을 접목한 AI 반도체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AI 반도체의 상용화 시간을 단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임



V.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계획

1. 주요 사례

② 마이리얼트립

■ 여행앱 마이리얼트립, 시리즈F 펀딩 라운드에서 756억 원 투자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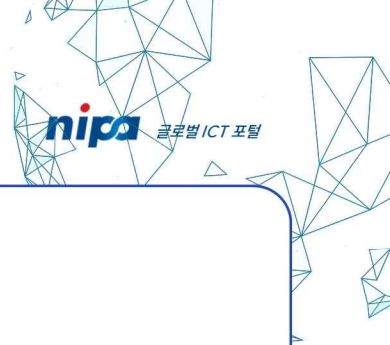
- 유명 여행 앱 운영사인 마이리얼트립은 19일 시리즈F 펀딩 라운드에서 756억 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함
- 이번 투자는 글로벌 투자사 BRV캐피탈매니지먼트, 프랑스의 코렐리아캐피탈 등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되었으며, 코렐리아캐피탈이 한국 기업에 투자한 첫 사례임
- 기업 가치는 약 6,000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누적 투자액은 총 1,900억 원에 달함

■ 글로벌 M&A 전략 및 내실 다지기

- 마이리얼트립은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기보다는 글로벌 인수합병(M&A)을 전략적 성장 경로로 삼고 있음
- 이 전략은 글로벌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과의 투자 계약에 세부적인 주식 전환 요건을 포함시킴으로써 강조됨
- 올해 초 받은 756억 원의 투자금 배정을 완료하고, 경영진 주식 옵션과 기존 투자자 워런트를 포함한 자기 자본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M&A 활동을 통한 확장을 모색하고 있음

■ 서비스 확장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초기에는 관광, 체험, 활동 상품 판매에 주력했던 마이리얼트립은 항공편, 호텔, 렌터카 등으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
- 패키지 여행 상품 도입과 고객 데이터를 결합해 최적의 여행 상품을 만드는 혁신적인 ‘마이팩’ 서비스가 월간 거래량을 25억 원으로 크게 끌어올림
- 삼성전자, 넥슨 등 100여 개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B2B 서비스도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2024년 2분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하여 3,716억 원에 달하며 분기별 흑자를 처음으로 달성함
- 또한, 마이리얼트립의 브랜드 경쟁력은 ‘K-브랜드 지수’에서 모두투어와 노랑풍선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며 인정받음



V.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계획

1. 주요 사례

③ 스트라드비전

■ 스트라드비전, 자율주행차 AI 기반 특화 시스템 개발 및 투자 유치

- 스트라드비전은 자율주행차용 AI 기반 전문 시스템의 선도 개발자 및 공급자로 부상하며, 기술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상당한 투자를 확보함
- 최근 자율주행 분야 3대 기업 중 하나인 앵티브(Aptiv)가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하여 4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함
- 이번 투자를 통해 스트라드비전의 누적 자금 조달 규모는 2,000억 원에 가까워져 업계에서의 영향력과 잠재력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함
- 스트라드비전은 지난 2년간 KClavis Investment, Nvestor, Timefolio Asset Management, LSS Private Equity 등 주요 기업으로부터 총 1,07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유치함

■ 몰입형 AR 내비게이션 개발 및 일본 자동차 업체와 협력

- 스트라드비전은 일본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하여 몰입형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본 이니셔티브는 고급 차선 감지 및 도로 인식 기능을 통합하여 운전 경험을 향상시키고, 보다 정교한 차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산은 2026년 3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며, 코스닥 상장 계획이 진행 중임
- 이멀시브(Immersive) 시스템은 스트라드비전의 SVNet 객체 인식 솔루션을 활용하여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제공하며, 정밀한 차선 감지, 도로 요소의 상세한 분류를 위한 의미론적 분할, 엣지 감지 기능을 포함함

■ SVNet을 통한 객체 인식 및 3D 인식 기술 혁신

- 스트라드비전의 SVNet은 주변 물체와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저가 칩셋과 반도체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30여 개의 싱글칩 시스템(SoC) 플랫폼과 호환됨
- 이러한 적응성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제품 디자인이 가능하여 시장에서의 매력도를 높임
- 획기적인 개발로 스트라드비전은 독점적인 3D 인식 네트워크를 SVNet에 통합하여 고가의 LiDAR 센서를 카메라로 대체할 수 있게 함



V.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계획

1. 주요 사례

④ 케어링

■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 시리즈 B 투자 유치로 누적 750억 원 달성

-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선도 스타트업 케어링이 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여 누적 투자액이 750억 원으로 증가함
- 이번 성과는 국내 노인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업계에서 최대 누적 투자로, 케어링의 시장 내 두드러진 입지를 부각시킴
- 최근 자금 조달 라운드는 SV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하였으며, 기존 투자자인 LB인베스트먼트와 현대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외에도 산업은행, IMM인베스트먼트, 유진자산운용 등이 새롭게 참여함
- 새로 확보한 자금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가정 통합 요양 서비스 국가 인프라 구축에 전략적으로 배분될 예정임

■ 베트남 센그룹과 해외 돌봄 인력 양성 협약 체결

- 케어링은 국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의 센그룹(Cen Group)과 해외 돌봄 인력 육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이번 협업은 한국어와 문화에 정통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국내에서 증가하는 요양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협약은 한국어 및 문화 교육, 돌봄 서비스 실무 연수, 일자리 창출 및 채용 연계, 돌봄 인력 공급 관련 신사업 모델 탐색 등을 포함함
- 노인 돌봄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해온 센그룹은 자회사인 센글로벌아카데미(Cen Global Academy)를 통해 이번 파트너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학원은 간호 및 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노인 주거 단지에서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은 인력을 매년 일본과 독일 등으로 파견하고 있음
- 케어링의 센그룹과의 협력은 TWG그룹 및 SDAMC와의 이전 협약과 함께 글로벌 돌봄 인력 개발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V.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계획

1. 주요 사례

⑤ 업스테이지

■ 업스테이지, 시리즈 B 투자 유치로 1,000억 원 확보...국내 AI 분야 최대 규모

-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음
- 이는 2021년 316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대비 약 3배에 달하며, 국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로 기록됨
- 이로써 업스테이지는 시드 투자부터 시리즈 A, B까지 총 1,400억 원의 누적 투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음
- 이번 투자에는 SK네트웍스, KT, KDB산업은행, 신한벤처투자 등 다수의 신규 투자자가 참여하였으며, 기존 투자자인 SBVA, 프라이머사제 등도 후속 투자를 단행하였음

■ 아마존웹서비스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 업스테이지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ISV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음
- 이를 통해 AWS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대형언어모델(LLM) '솔라' 및 AI 솔루션의 공동 영업을 추진함
- 본 협력은 AWS와 함께 국내외 AI 시장을 공동 개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업스테이지는 AWS의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하여 솔라를 개발하였으며,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솔라의 경량화 모델인 '솔라 미니'를 출시하였음
- 이번 협력을 통해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 및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맞춤형 LLM 도입 수요를 발굴하고, 다국어 지원을 위한 솔라를 고도화하여 글로벌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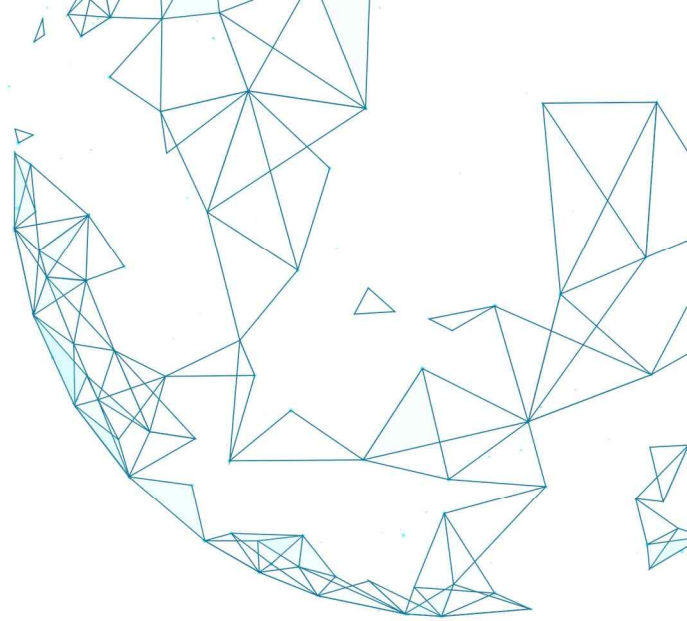
■ 업그레이드된 OCR 모델 '도큐먼트 파스' 공개, 빅테크 모델 능가

- 업스테이지는 차세대 광학문자인식(OCR) 모델 '도큐먼트 파스(Document Parse)'를 공개함
- 도큐먼트 파스는 기존 OCR 모델보다 복잡한 레이아웃 인식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복잡한 형태의 문서에서도 구조와 텍스트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여 데이터 자산화를 가능케 함
- 도큐먼트 파스는 업스테이지가 구축한 문서 구조 분석 벤치마크 'DP-벤치'에서 테스트한 결과,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포함한 빅테크 5개사의 관련 서비스보다 5%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또한, 속도 면에서도 1분에 100장을 처리하여 기존 모델보다 월등히 빠른 능력을 보였음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1. 이투뉴스(e2news.com)
2. 테크월드뉴스(epnc.co.kr)
3. 전자신문(etnews.com)
4. 아이뉴스24(inews24.com)
5. 굿모닝충청(goodmorningcc.com)
6. 아이티데일리(itdaily.kr)
7. 데이터넷(datanet.co.kr)
8. 지디넷코리아(zdnet.co.kr)
9. 데이터뉴스(datanews.co.kr)
10. 시사저널e(sisajournal-e.com)
11. 한국경제(hankyung.com)
12. 아시아경제(asiae.co.kr)
13. 한국일보(hankookilbo.com)
14. 더구루(theguru.co.kr)
15. 히트뉴스(hitnews.co.kr)
16. 더나은미래(futurechosun.com)
17. 이데일리(m.edaily.co.kr)
18. 인공지능신문(aitimes.kr)
19. AI타임스(aitimes.com)
20. 디지털타임스(dt.co.kr)
21. 이투데이(etoday.co.kr)
22. 헬로티(hellot.net)



품목별 ICT 시장동향

- 발행·편집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발행일자 : 2024.12.13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